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 쿼일러(聖誕快樂)!!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어느덧 2023년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왔습니다. 우상과 조상숭배로 가득찬 대만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한국교회 역시 한국인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의 성탄카드를 골랐습니다.

평화의 왕 그리스도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과연 평화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현실을 보면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인간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로 받아들이면 ‘아멘’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 받은 말씀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상대방을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직접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대인관계와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니 저의 마음속에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소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화평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목상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만 사회는 내년 1월 13일 총통과 입법 위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회내에도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고조될 위험이 있어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언행에 신중해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는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때에 오히려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회가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교회가 선교할 때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전쟁을 막아 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에 더욱 열심을 내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서 저희도 힘껏 협력하고 있습니다.

삼성 교우들과 대림절 예배

매월 둘째 주일은 이란현 삼성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방을 예비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삼성교회를 협력하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엔 목사 부부만이 주일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지만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신실한 주의 종을 도우면서 마침내 딱딱한 땅이 기경 되고 뿌린 씨앗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이 FR자매입니다.

그는 1년 전에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세상을 떠나 큰 아픔을 겪는 중에 시댁 식구들로부터 오히려 가해자로 모함을 받기까지 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시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할 도리를 다 하는데 몸에 마비가 와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삼성 교회 사모님이 그를 1대1로 만나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몸도 차차 회복되어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모님은 FR자매에게 손재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카드 및 여러 수공예를 가르쳤는데 빨리 배우고 솜씨가 좋았습니다. FR자매는 퇴근후에 종종 교회에 혼자 와서 카드를 만들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두발로 일어섰을 뿐 아니라 그가 만든 복음카드는 전도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세상에서는 미미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 둘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결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24일 성탄절에는 20명이 넘게 참가신청을 하였고 처음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노방 전도를 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배



삼성교회 교우들과 기념 촬영



FR자매가 만든 복음카드

주베이, 흥산, 은혜 교회 성탄절 연합 전도집회

12월 17일은 석달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했던 성탄절 집회를 하는 날입니다. 2년간 매월 한번씩 방문 협력하는 주베이, 흥산 교회와 새로 개척하는 은혜교회 세 교회가 연합하여 성탄절 전도 집회를 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 교회 모두 고정적인 교인이 열명 남짓한 작은 교회입니다. 작년 성탄절에 나와서 결신기도까지 했지만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 목회자들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베이 교회의 마 전도사님과 저희 부부가 주축이 되어 성대한 성탄절 전도집회를 제안하고 두 교회 지도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다며 주춤하던 두 교회도 함께 기도하며 용기를 얻어 사람들을 청하기 시작했고 준비할 당시는 40명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당일 날은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작년까지는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순서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자체적으로 집회를 주관한 것이 큰 의의가 있습니다.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추운 날씨였지만 신청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왔습니다.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기도와 세명의 간증, 캐롤, 마지막으로 제가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고 초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은 풍성한 뷔페를 준비하고 참석자 모두에게 성탄선물과 함께 성경책을 가정당 한권씩 증정하였습니다. 참석한 분들 중 상당수가 깨어진 가정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었기에 간증과 메시지를 들으며 따뜻함과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중에 몇 분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참여한 이들의 믿음이 한단계 진보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만나고 교회생활을 통해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협력교회(주베이, 흥산, 은혜 교회) 연합 성탄절 전도 집회

기타 동정

1. 내년부터 저는 베이따 장로교회에서 선교담당 자문 목사로 위촉받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담임 목사와 함께 교제하면서 베이따 장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 것이 2년만에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년간 베이따 장로교회가 선교의 첫발을 내딛는 한 해가 되도록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12/3일에는 쌍화 송전당 (객가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비록 교세는 크지 않지만 객가선교를 선도하는 위(余)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로서 지금도 객가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도 좋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협력교회들이 올 한해를 성탄절 집회로 풍성하게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탄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2. 주베이 교회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후임자를 예비해 주시도록
(지난번 기도 요청했던 회이나(惠娜) 전도사는 오지 않기로 했음)
3. 삼성교회가 내년에 제자반을 개설하여 소그룹 인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4. 1월에서 2월초까지 한국에서 후원교회 방문 및 설교, 선교 세미나, 건강 검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2월 20일

대만에서 황창연 오순영 선교사 드림